

땅

활흙과 흙알갱이가 뭉치고 흩어져 들단을 형성하고, 직경 0.02mm~0.2mm 사이의 모래들은 활흙과 뭉쳐 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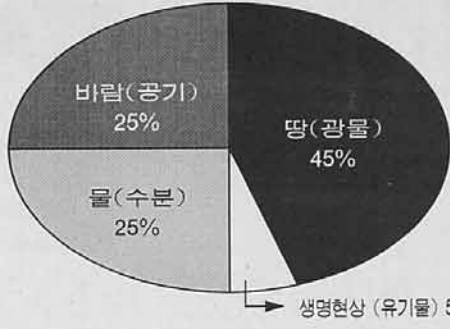
땅은 지대(地大)라고 하는데 큰 대(大)자는 마하부파라고 하는 빠알리어를 번역한 것이다. 마하부파는 위대한 존재라는 뜻이다. 땅은 참으로 땅이라고만 할 수 없는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이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생명구조를 갖고 있는 위대한 존재이다.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이집과 저집이 있고 그 공간에는 계곡이 있고 들과 관에는 여기저기에 낮은 웅덩이가 있고, 물이 흐르고, 강, 호수가 있고 구름이 떠다니고, 따스한 햇빛이 비추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 놀듯이, 한중의 흙속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다. 한 중의 흙속에는 아주 작은 직경 0.002mm크기의

을 만들고, 직경0.2mm~2.0mm의 굵은 모래들은 활흙과 뭉쳐 바위와 산을 이루고 있다. 그들 사이로 햇빛에서 온 온기가 전달되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떠다니고, 시냇물이 흐르고, 호수가 형성되어 수많은 생명이 집을 짓고 산다. 이러한 지표의 건강한 흙 1그램속에는 엄청난 밀도의 수많은 나무들이 존재한

다. 그것이 균사류 즉 곰팡이들인데 이 균사류의 크기의 총연장이 3~4억 미터나 된다고 하니, 1그램의 흙속에도 열대의 원시림을 무성하게 할 정도의 수많은 식물로 존재하는 셈이다.

또한 그러한 마른흙 1그램의 생태 환경속에는 무려 7~8억마리의 세균들이 집을 짓고 산다. 상상해 보라. 과연 1그램의 흙속에는 살아있는 지구를 방불케 한다. 지구가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한중의 땅의 흙은 땅, 물, 불,



◇지구의 배양기 구조비

## 1g 흙에도 7~8억 생명이 집짓고 살아 물·불·바람 등과 상호작용...인체도 같아

바람, 생명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땅의 생태적 구성비율은 사막이나 해저, 눈이나 밭이나에 따라 조건적으로 변화하지만 그러한 모든 생태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지구상의 어디에서든지 상호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땅의 이러한 토양학적 생태환경은 우리의 신체구조속에 그대로 반영되

어 있다. 우리의 몸의 장기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의 생물화학적 작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부처님은 중부아함경 상적유대경(象執喻大經)에서 외부적인 이러한 자연의 땅에 대해서 내부적인 신체의 땅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분명히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순환적 생태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이 땅의 세계인가? 내부의 땅의 세계와 외부의 땅의 세계가 있다.

벗어, 무엇이 내부의 땅의 세계인가? 내부적인 것으로 개체적인 것이며, 거처는 것이며, 견고한 것이며, 취척된 것으로, 예를 들어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살, 혈관,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통 및 기타의 다른 내부적인 것으로 개체적인 것이며, 거처는 것이며, 견고한 것이며, 취척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벗어나 내부적인 땅의 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땅의 세계인 것과 외부적인 땅의 세계인 것을 땅의 세계라고 한다.”

## '95 신행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공무원인 강정원씨(24)는 불교 종합학교인 모교대학을 다닌 탓에, 자신을 불교신도라고는 느끼지만 절에 가는 것은 1년에 한번인 부처님 오신 날, 어머니 따라 절에 가 등을 달면서 언젠가는 절에 정기적으로 나가리라 다짐하지만 언제나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고 아예 신도회까지 가입했다. 신도회 정기법회때 자신을 환영하며 뜨겁게 박수쳐 주던 신도들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새롭다. 김보살은 이른바 칠새신도, 그동안 한 사찰을 정해 다니기 보다 기도 영험이 있다는 사찰을 순례하듯 들으셨다. 전국적으로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

인연에 사는 안영희 보살(50)은 며칠전 시니어상을 당하고 슬프기에 앞서 갑작스런 상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불교와 시어머니가 같이 다니고 있는 오사 신도회에서 3일 낮 밤을 들심으로 도와주어 무사

가사 신도회에 가입까지 하게된 이유는 방배동 아파트루 이사오면서 상에 들어 살게된 친구 때문이다. 친구의 권유로 가사에 가본 김보살은 모든 절운영과 관리가 신도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금주의 주제

신도회 가입

## 소속감갖고 폭넓은 신행활동

곳은일·기쁜일·수행도 “도반과 함께”

히 큰일을 치를 수 있었다. 보사 거사팀에 등록하고 매주 금요일에 하는 교리공부에 동참하고 있는 이찬교(55)는 최근 금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 정기법회에도 나오게 됐다. 일요일에 1번 절에 나오는 것이 힘든 것 같고 틈을 내기 어려운 것 같은 두달전 생각이 이제는 아득하다. 강사님의 쉬운 해설에 불교공부가 술술 재미있지만 절에 나오다 보니 절이 마치 고향처럼 포근하고 스님들과 토론도 하고 상담도 한다.

늘었다. 친구말을 듣고보니 한달에 한번 신도회 일일회를 열어 사찰 행사 전반을 논의하고 3개월에 한번씩 자체감사도 한다는 것. 주지스님도 필요한 돈은 허가를 얻어야 하며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한다는 말에 쫄린 사람 운영을 느낄 수 있었다. 김보살은 주지스님이 “잘 오셨습니다. 이 절의 주인은 바로 신도분들이십니다. 손님처럼 생각지 말고 주인의식으로 절을 마치 내집처럼 여겨주시시오”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래 방랑하다 한곳에 정착한 신도로서 최선을 다한 것을 다짐해 본다.

깨달음의 사회화 성공

- ▲조계종 총회회장 설경스님 6십만원
- ▲도선사 1천1백4십2천원
- ▲봉은사 8백5십1천2백원
- ▲금산사 7백2십9천4천350원
- ▲일암사의 1인 2만원
- ▲수국사 6십3천원
- ▲청계사 5백만원
- ▲강서 약사사 1백3십2천8천원
- ▲종선사 2백1십5천6천원
- ▲이명 5백만원

성공금계좌번호  
농협 053-01-22778(불교중앙교원)  
국민은행 023-01-0533-563(불교중앙교원)

## 신행수첩

### 부처님의 땅 제주순례 불교시민상담실

국제관광지 제주는 불교성지이기도 하다. 부처님 제자 발타라존자가 진신사리를 한라산 영실에 모신것이 2천5백년전.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것이 1천6백년전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1천년이나 앞선다. 제주가 부처님땅임을 증명하는 것은 더 있다. 탐라, 아라, 사라등의 지명이 범어라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서귀포, 법환리, 절골등 한라산 어디에도 불교용어가 지명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인구 50만명에 사찰만 3백50여개가 있으니 어찌 제주가 부처님 땅이 아니겠는가.

성지인지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지역 사찰과 불교유적지를 참배하기로 한것이다. 이번 순례에는 고려말 불교역신을 피하다 순국한 보우대사 순교성지 고관사를 비롯 법화사지, 약전사, 보덕사등을 참배한다. 또한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 자리한 해수관음상을 찾아 각자의 발원을 세울 예정이다. (02) 722-0108

참회의 삶에 자비손길

청송·대구 재소자 위문

되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재소자들은 추운 겨울을 맞아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기다려 지는 것이다. 경전속송연구와 자비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대

구 범회경교단(범주 광덕)은 오는 22일 27일 각기 청송감호소와 대구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위문법회는 재소자들의 마음공부를 위한 불사를 비롯 위문품을 전달하고 광덕스님이 법문을 설한다. 부처님법을 찾는 재소자들에게 한권의 불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될 위문법회는 추운겨울을 녹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053)952-8711

### 스님·신도함께 등산 26일 법왕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산행을 겸한 야외법회를 떠난다. 법왕사(주지 실상)는 26일 스님들과 거사팀, 청년회, 중·고등학교생, 어린이회가

함께 하는 동계 산행 야외법회를 갖는다.

김천 직지사 참배 및 황악산 경상 산행으로 짜여진 일정은 불제자들에게 신심으로 추위를 이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명산의 정상에 올라, 대자연과 하나되는 법을 맛보게 할 것이다.

신라 눌지왕 2년(418) 아도화상에 의해 개창된 직지사(眞寂寺)의 절 이름은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했다는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야외법회에 동참할 불자들은 자유로운 복장에 도시락을 지참하고 아침 7시 30분까지 법왕사에 모여야 한다. (053)766-3747

### 가족찬불가 솜씨자랑 대구시 신도회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그 마음이 미묘한 향이로다.” 불자들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생활경구들. 현대에는 유치원 아이에서 팔순노인에 이르기까지 현철의 ‘봉선화 영정’을 노래하고, 노사연의 ‘민남’을 부른다. 쉽게는 손가락 장단에 맞춰 삼귀의를 부르고, 보현행원을 노래할 수 있는 찬불가 또한 불법의 인연을 이어가는 불자들에게는 경전보다, 열불보다



◇대구법왕사는 26일 스님들과 일반신도 및 어린이 불자들이 함께하는 동계산행법회를 직지사 황악산에서 갖는다.(사진은 직지사 대웅전과 삼층석탑)

친근하게 다가온다.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에서는 이처럼 대중불교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찬불가 향연의 장인 ‘제2회 가족 찬불가경연대회’를 마련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수확할 기회를 주신다. 경연대회는 1차 예선을 4월 22일 대구 보현사에서 거쳐 5

### 폐품모아 환경보호 실천합시다

24일부터 본동사회복지관 재활용교환센터 운영

무심코 버리는 수많은 종이들을 모아 만든 재활용 휴지, 넘쳐버리는 폐유를 모아 만든 재활용 비누를 사용하는 불자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환경은 봄날의 미소처럼 활짝 피어날 것이다.

환경보존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실시되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재활용교환센터는 매일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우유곽, 신문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지역주민들과 재활용비누, 휴지를 함께 교환하면서 자치단 큰 환경보호의 힘을 엮어 나갈 계획이다. (02)817-8052

### 생활속의 불교 16



## “왜 사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왜 사느냐 묻거든 웃지요” 인생을 꿈 같다고 읊은 이가 있다. 물거품 같다. 뜬구름 같다고도 한다. 금강경에선 동환포영(夢幻泡影), 꿈·환상·물거품·그림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꿈자리에서조차 잊지 못해 하는 명예·권력·부란 무엇인가. 그 모든 게 다 동환포영이란 말인가.

이 즐거운 세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권력·명예를 쟁취하고, 나 보란듯이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시적인 향락이나 평안을 얻을 수는 있어도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왜냐? 이 몸은 조만간 스러져 갈 것이고 갈 때는 이 몸뚱이 끌고 갈 수도 없고 동전 한 푼 들고 갈 수도 없고 명예를, 권력을 겨안고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평생을 기울여 그렇게 집착하며 구하던 것들도 생을 마감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 되돌아 보는 순간 모든게 꿈·환상·물거품·그림자가 아니겠는가.

사람은 꿈이 꿈인줄 모르기에 꿈 속에서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 그러다가 깨어나보니 쓸쓸하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쾌락의 꿈,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크게 한 번 걸걸 웃고 명철한 눈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 사느냐는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 최대의 숙제이다.

불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밝혀주고 길을 가르쳐 준다. 내가 누구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를 가르쳐준다. 그 가르침에는 사람의 환희가 있다.

##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 베파베리아 (VAPOUR BARRIER:알미늄 보온방습 단열제)

### 자체개발에 성공!

삼민산업(주)은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온 고품질 베파베리아의 자체개발에 성공, 의정부, 서울, 충청,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을 아우르는 생산업체 납품과 국외 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민산업(주)이 개발한 베파베리아는

- 1. 경이적인 단열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 2. 방습·방수 효과가 우수합니다.
- 3. 실내의 온도를 차단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 방습용 베파베리아 · 건축용 베파베리아 · 축사용 베파베리아  
· 단열용 베파베리아 · 방수용 포장재 · 레저용 MAT

**삼민산업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4 나-100호  
전화: 0345-498-5533  
팩스: 0345-498-8998